

2016 국외연수 보고서

(2016년도 5월)



금 천 구 의 회

이 보고서를
해외비교시찰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6.

의 장 정 병 재

의 원 류 명 기

의 원 백 승 권

의 원 김 경 완

의 원 박 찬 길

의 원 박 만 선

의 원 김 영 섭

의 원 김 용 진

의 원 이 경 옥



목 차



I. 연수개요	-----	1
II. 연수일정	-----	2
III. 연수참가자	-----	3
IV. 연수 세부내용		
1. 연수도시	-----	4
2. 공식기관 방문	-----	11
2. 주요시설 방문 현황	-----	20
3. 문화탐방	-----	26
V. 연수국가 우수사례	-----	34
VI. 연수후기		
1. 연수총평	-----	37
2. 의원별 연수후기	-----	42

- 연수기간 : 2016. 5. 17(화) ~ 5. 24(화) 【6박 8일】
- 연수국 및 도시 : 호주·뉴질랜드/시드니, 오클랜드, 로토루아 등
- 연수인원 : 13명(의원 9명, 수행직원 4명)
- 연수목적
 -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방문을 통해 서로 다른 의회 운영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 발굴
 - 주거공간 및 주택 문제에 관한 벤치마킹을 위해 홈월드 비교 시찰
 - 로토루아 데이브레이크 케어 비교시찰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유연한 노인을 위한 주간보호 사례 연구
 - 오클랜드 한국학교의 교민대상 방과후 학교 운영 등 다문화 가정이 많은 우리구에 접목할 수 있는 우수정책에 대한 자료 수집
- 주요 방문지
 - 시 드 니 :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올림픽파크, 홈월드, 오페라하우스, 시드니시내, 세인트메리 대성당 등
 - 오클랜드 : 한국학교, 시티타워, 데본포트 등
 - 로토루아 : 데이브레이크 케어, 마오리 민속마을, 아그로돔 농장 등
 - 기 타 : 와이모토 은하수 반딧불 석회동굴 등

일 자	장 소	교통편	시 간	주 요 방 문 일 정
1일차 5/17 (화)	구 의 회 인천공항	관용차량 OZ601	16:00 17:00 20:10	의회 집결 후 인천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인천공항 출국
2일차 5/18 (수)	시 드 니	전용버스	06:15 (전일)	시드니 도착후 입국수속 ▶환경보전 공원 개발사례 블루마운틴 시찰 ▶친환경 개발 사례 시찰 (쓰레기 매립장을 재조성하여 설립된 올림픽파크 습지)
3일차 5/19 (목)	시 드 니	전용버스	10:00 14:00 16:00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공식 방문 시드니 시내 탐방(오페라 하우스/하버브릿지) ▶홍월드 공식 방문
4일차 5/20 (금)	시 드 니 오클랜드	전용버스 QF147	10:00 16:15 21:20	시드니 동부 해안도시 시찰 시드니 국제공항 출발 오클랜드 국제공항 도착
5일차 5/21 (토)	오클랜드 로토루아	전용버스	08:30 14:00 15:30	오클랜드 데본포트 탐방(에덴동산/미션베이 등) ▶오클랜드 한국학교 공식 방문 로토루아로 이동
6일차 5/22 (일)	로토루아	전용버스	전일	로토루아 시내 탐방(레드우드 수목원 등) ▶로토루아 문화체험 (아그로돔 농장, 마오리 민속마을 등)
7일차 5/23 (월)	로토루아 오클랜드	전용버스	전일	▶관광개발 우수사례 시찰(와이모토 반딧불 동굴) ▶로토루아 데이브레이크 데이케어 공식 방문
8일차 5/24 (화)	오클랜드 시 드 니 인천공항 구 의 회	QF140 OZ602 관용차량	06:00 07:40 09:30 19:30 21:00	오클랜드 출발 시드니 도착후 국제선 연결수속 시드니 출발 인천공항 도착 구의회 도착

III 연수참가자

연번	직 위	성 명	비 고
1	의 장	정 병 재	시찰 단장
2	의회운영위원장	류 명 기	부단장
3	행정재경위원장	박 만 선	단 원
4	복지건설위원장	백 승 권	"
5	의 원	김 영 섭	"
6	"	김 경 완	"
7	"	김 용 진	"
8	"	박 찬 길	"
9	"	이 경 옥	"
10	사무국장	이 미 숙	수행총괄
11	행정 7급	김 종 명	수행직원
12	행정 7급	신 동 식	"
13	행정 8급	오 세 완	"

1. 연수국가

호주[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 국 토 : 7,741,220km² - 지구상 가장 작은 대륙, 6번째 큰 면적
- 국 명 : 오스트레일리아연방(1923년)
- 수 도 : 캔버라(1909년 ~ 현재)
- 인 구 : 21,338천명
- GNP(2006년 기준) : 전체 6,749억\$, 1인당 32,220\$
- 주요 언어 및 종교 : 영어, 개신교
- 정 치 : 연방의회제(공식적으로는 입헌군주제), 양원제(상·하원)
- 주요산업 : 농업(밀), 목축업(소, 양), 광업 등
- 화 폐 : 오스트레일리아 달러(\$A), 1\$A=1106.28, 1\$=1.01\$A
- 시 차 : 한국보다 1시간 빠름(썸머타임 적용할 경우 2시간 빠름)
 - ※ 영국으로부터 1901년 독립하고 우리나라와 1961년에 수교
 - ※ 한국전 파병국(20,000명 파병 중 339명 전사)

○ 역 사

- 대부분의 국민들이 유럽계의 후손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비백인계 소수집단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다. 인구 중 아시아계 비율은 이민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공용어는 영어이다. 국민 대다수는 개신교를 믿는다. 하지만 로마 가톨릭교 · 그리스도교 있으며, 불교 · 이슬람교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원주민(Aborigines)들은 최소 5만년전에 이주해 거주하기 시작했다. 1788년 유럽인들이 정착할 당시 원주민의 수는 대략 30만 ~ 100만명으로 추정한다. 1616년에 네덜란드인들과 1688년에 영국인들이 이 대륙에 발을 디뎠으나, 최초의 대규모 원정은 1770년 제임스 쿡이 해냈다. 이 원정으로 영국은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했다. 1788년 최초의 영국인들이 포트 잭슨에 정착했다. 이주한 영국인들은 주로 범죄자와 선원들이었고, 1868년까지 약16만명에 달하는 죄수들이 호주로 호송되었다. 1859년까지 호주의 모든 주에 식민지역들이 형성되었다. 1850년대에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골드러시의 시대를 맞아 중국 등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1850년 40만 인구는 30년 후에 223만명까지 증가하였다. 금을 찾는 사람 이외에 기술자 · 장사꾼도 모여들어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물자 교류 및 본국과의 교역도 왕성해졌다. 시드니와 멜버른은 이 금광시대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 호주는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1960년대부터 원주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이민 규제를 완화했다. 호주 정부 정책을 간섭하던 영국의 헌법적인 장치들이 1968년에 폐지되었다.
- 호주는 형식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원수는 영국 국왕이고 총독에 의해 대표된다. 실제로는 양원으로 구성된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수반은 총리이다.

○ 산 업

- 호주는 석탄, 석유, 우라늄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그레이트디바이딩 산맥에서는 석탄이, 대륙의 북서부에서 철광석이, 서부에서 금이, 북부에서 보크사이트나 우라늄이 나온다. 1979년 대량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되었다. 기본적으로 경제는 자유기업체제이다. 가장 비중이 큰 산업 분야는 금융업, 제조업, 무역업이다.

○ 자연환경

- 적도 남쪽에 있는 호주 대륙은 동서 약4,000km, 남북 약3,200km에 이른다(호주 면적은 대한민국의 78배). 지형은 기복이 많지 않은 단조로운 평면형이고 호주는 대륙 본토와 태즈메이니아 섬, 그 외의 많은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주 대륙 본토는 인도-오스트레일리아 판 위에 있다. 호주대륙은 평균고도 340m로 전 대륙 중 가장 낮다. 최고봉은 수도 캔버라의 남남서 120km 지점에 있는 코지어스코 산(2,230m)이다. 이 곳은 호주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지형으로 겨울에 눈이 오는 유일한 지형이다. 더욱 동쪽은 온난 습윤한 서안해양성 기후이고 물이 많아 인구 밀도가 높다. 브리즈번, 시드니,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는 모두 이 지역에 분포해 있다.

뉴질랜드[New Zealand]



- 국명 : 뉴질랜드(New Zealand)
- 위치 : 대양주 남단[해안선 : 태즈먼 해, 남태평양(15,811km)]
- 면적 270,534km² (남한의 2.7배)
(북섬 11만 6,000 km², 남섬 15만 1,000km²)
- 기후 온난해양성 기후(1월 평균 16.5도, 7월 평균 8도)
- 수도 웰링턴(Wellington) - 1865년 오클랜드에서 천도
- 인구 : 447만 8백명(북섬에 약 75% 거주)
- 주요도시 : Auckland(150만), Christchurch(38만), Wellington(39만), Hamilton(21만)
- 인종 : 유럽인(61.2%), 마오리(13.3%), 아시안(8.3%), 기타(16.9%)
- 언어 : 영어, 마오리어(원주민어)
- 종교 : 기독교 약 51% 및 여러 종교 산재
- 건국일 : 1840. 2. 6(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간 Waitangi 조약 체결)
- 정부형태 : 의원 내각제(3년마다 총선 실시)
- 국가원수 : 영국 Queen Elizabeth II
- 수상 : John Key(국민당 당수)
- 경제 지표
 - GDP(명목) NZ\$ 2060억(US\$1,721억)
 - 경제 성장률 2.5%
 - 1인당 GDP(명목)NZ\$46,678(US\$39,004)
 - 화폐단위 : NZ Dollar(NZ\$)

- 산업구조 : 1차 산업(7.01%), 제조업(12.96%), 전기가스수도(2.21%),
건설(4.2%), 도소매 숙박(12.21%), 운송 통신(11.43%)
금융 보험(4.84%), 공공행정안전(4.28%), 부동산임대(12.54%)
- 교역규모 : US\$755.69억(수출 US\$ 373.10억, 수입 US\$ 382.62억)
- 주요 교역 품목 : 낙농 제품, 육류, 목재, 양모, 수산물
- 특수 관계 : 1950년 한국전에 뉴질랜드 군인 6,020명이 참전, 45명이 전사
- 역 사
 - 뉴질랜드 인류의 역사는 약 1천 년 전 폴리네시아 원주민이었던 마오리족이 뉴질랜드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뉴질랜드에 첫발을 디딘 사람은 마오리족 쿠페와 그의 부인으로 알려졌다. 폴리네시아의 어느 섬인 '하와이키'에 사는 항해사 쿠페는 어느 날 남쪽으로 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항해를 하던 중 어느 하얗고 긴 땅을 보고 육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부인이 저것은 하얗고(Tea) 긴(Roa) 구름(Ao)이라고 답했다. 결국 도착해보니 구름이라 생각했던 곳은 아름다운 낙원이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쿠페는 아름다운 낙원에 대해 아오테아로아(Ao Tea Roa: 뉴질랜드를 뜻하는 마오리 말로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라 칭하며 부족들에게 전했다. 그 뒤 부족들은 아오테아로아를 찾아 기나긴 항해를 떠났다, 마침내 뉴질랜드를 찾아냈고 이곳을 정착지로 삼아 살아가게 된다.
 - 1642년 네덜란드의 탐험가 아벨 타스만이 남섬 웨스트 코스트를 항해하면서 뉴질랜드라는 곳을 유럽인 최초로 발견한다. 그러나 마오리족들과의 사소한 오해로 상륙하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로부터 100년 뒤 영국인 항해사 제임스 쿡이 뉴질랜드를 살살이 돌아보며 해안지도를 만들었고 1790년경 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인들이 이주하였다. 유럽인들이 늘어감에 따라 마오리족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면서 1840년 영국 왕실과 마오리족 사이에 와이탕이 조약을 맺게 되었다.

- 하나의 국가 탄생을 알린 와이탕이 조약을 통해 영국인은 마오리족의 땅을 매입할 권리를 얻게 되었고 마오리족은 합법적으로 영국인이 되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날을 개국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영국인의 이민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다른 유럽인들도 뉴질랜드를 찾게 되었다.
- 이민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토지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비옥한 곳의 토지를 소유한 마오리족들은 영국인들에게 토지를 팔고 싶지 않았는데 이 문제로 축각이 날카로워지면서 영국인들은 무력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860년 전쟁이 일어났고 12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 전쟁은 수적으로나 무기로나 우세한 영국인의 승리로 끝나며 마오리족의 수를 급감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식민지를 겪으며 19~20세기의 뉴질랜드는 정치·경제·문화면에서 영국을 롤모델로 삼고 발전하였다. 지금은 영국 여왕을 군주로 모시지만 정치는 의회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공화국으로서 뉴질랜드 국가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 역시 영국과는 상관없이 자국의 이익을 최대로 하는 독립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 지 리

- 남태평양 한가운데 길게 뻗어 있는 뉴질랜드의 국토는 대부분 산으로 이뤄져 있다. 남섬의 서던 알프스에는 만년설과 빙하로 둘러싸인 산이 많고, 북섬에는 활화산이 즐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 강국’으로 불리는 까닭은 영국 이주민들이 울창한 삼림을 개간해 농지로 만들어놓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뉴질랜드 전역에는 8만여 개의 목장과 과수원, 원예단지가 조성돼 있다.

○ 기 후

- 뉴질랜드 북섬은 아열대 기후, 남섬은 온대 기후에 속한다. 계절은 한국과 정반대로 12~2월이 여름에 해당하고 6~8월이 겨울에 속한다. 계절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1년 내내 온화한 편이다. 여름 평균 기온은 20~30℃, 겨울 평균 기온은 10~15℃ 정도이다.

○ 전통문화

- 마오리 문화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토착 문화이다. 유럽인들이 이주하기 전 이 땅의 주인이었던 마오리족의 언어와 예술, 그들의 삶의 방식을 통틀어 마오리 문화라고 한다. 뉴질랜드의 인구 중 15% 정도인 마오리족은 지금은 도시에 거주하며 현대적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전통 마오리 부족에 가면 여전히 전통 의상과 전통 음식, 전통 예술을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다. 조각술, 천 엮기, 카파하카(마오리족의 전통 공연) 등 마오리족의 문화를 살펴보면 전통과 현대 예술이 적절히 혼합되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 대표문화

- 럭비는 미식축구와 비슷한 듯 보이지만 프로텍트를 입지 않고 룰도 전혀 다른 스포츠다. 대부분 영국연방 국가에서 대중적으로 즐기는 스포츠로 뉴질랜드에서는 국기로 여길 만큼 온 국민이 열광한다. 특히 매년 열리는 호주와의 정기 시합은 마치 한일전과 같이 접전이 벌어지며 양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큰 행사다.

2. 공식 방문 기관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6. 5. 19(목) 10시 ~ 12시
- 방문장소 :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 참 석 자 : 시의회 시장 및 관계자, 의원 9명
- 방문일정
 - 환 영 사 : 옥상두 시장
 - 방 문 사 : 정병재 의장
 - 방문기관 현황 소개 : 상옥 시장
 - 질의응답 및 기념촬영 : 상옥 시장, 방문단 13명

☐ 질의응답 주요 내용 및 사례연구

- 우리 스트라스필드시에서는 한국의 위상을 전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1만평 규모의 한국 정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스트라필드에 조성을 계획중인 1만평 규모의 한국 정원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타운으로 유명한 이곳 스트라스필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순천만의 정원 등을 벤치마킹하였으면 함.
- 스트라스필드는 한인타운과 많은 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음. 이러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
- 호주는 인종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스트라스필드는 호주 제1의 한인타운이 있고 다문화 가정이 많음. 우리시는 여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의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지원과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는 개별 교육프로그램에 정책적 우선권을 두고 있음. 이곳에서 잘 정착하여 다문화 가정이 서로 소통하여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의 정책적 목표임.

- 지난해 주민 청원으로 시작된 위안부 소녀상 건립이 결국 시의회에서 부결되어 추진되지 못했음. 부결된 이유는 무엇인지
- 스트라스필드에는 호주 제1의 한인타운으로 유명하며 우리 교민들이 과거 일본이 만행을 규탄하고 위안부 문제를 알리고자 소녀상 건립이 추진되어 우리 의회에 청원이 제기되었음. 처음 청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로비로 결국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음. 그러나 이것은 의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고 일단 보류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임. 언제든 다시 소녀상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에서 호주의 다문화 정책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집요하게 이를 방해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지원이 없어 이는 조금 아쉬운 점임. 본인도 일본 우익단체로부터 협박성 메일을 계속 받은 것이 사실이고 호주 정부도 일본 정부의 말을 들어 정치성 현수막 등도 일절 금지하고 있는 실정임.

□ 우수사례 및 시사점

-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개별적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특히 스트라스필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근로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구에도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함.
- 이국땅에서 정착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요구되며 지방의회 폐지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곳 스트라스필드 시의회에서 통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참고해 볼 만함.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현황

- 위 치 : 시드니 이너웨스트(Inner West)에 소재한 중규모 시의회
- 관장지역 : 벨필드(Belfield), 플레밍턴(Flemington),
그린에이커(Greenacre), 홈부쉬(Homebush),
홈부쉬 웨스트(Homebush West), 스트라스필드,
스트라스필드 사우스(Strathfield South)
- 면 적 : 14.1평방 킬로미터
- 인 구 : 약 40,000명(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한인이 많이 거주)
- 의회구성 : 평의원 7명(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선출)
- 시장 : 상 옥 의원(Councillor Sang Ok)
※ 시장은 평의원들이 선출, 현 시장은 한인
- 사무국장(General Manager) : 데이비드 백하우스(David Backhouse)
- 지역사무 : 도시 계획 및 건축 허가, 도서관, 지역사회 시설,
공원 및 특별보호구역, 쓰레기 및 재활용 서비스,
도로 인도 및 수목, 식품안전 및 축제, 행사 개최

시드니 홈월드(Heritage)

□ 연수개요

- 연수일시 : 2016. 5. 20(금) 09:00~10:00
- 장 소 : 시드니 켈리빌 홈월드(Heritage)
- 목 적 : 주거문제와 주택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 참 석 자 : 연수단 13명

□ 연수내용

- 푸른 자연환경과 공존하도록 설계된 모델하우스 타운으로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와 다르게 하우스를 선호하는 호주인들을 위해 35헥타르에 이르는 열린 공원에 현대 건축과 거리 풍경 사이의 균형을 맞춰 프리미엄 홈 디자인 등 하우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 도시개발이라고 하면 무조건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우리와 다르게 하우스 위주의 디자인 등을 제공하는 점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주거공간을 만들고 있는 호주만의 독특한 정책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도시재생 등 최근 우리 금천구의 도심 개발 방식도 바뀌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곳 홈월드의 모델타운이 호주의 인구와 나라 면적 등을 감안하면 우리에게 직접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특성을 감안한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활동사진



오클랜드 한국학교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6. 5.21(토) 14:00~15:00
- 방문장소 : 오클랜드 한국학교(서부)
- 참 석 자 : 교장 및 교감, 의원 9명
- 방문일정
 - 환 영 사 : 최명희 교장
 - 방 문 사 : 정병재 의장
 - 방문기관 현황 소개 : 최명희 교장
 - 질의응답 및 기념촬영 : 교장, 교직원 및 방문단 13명

□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뉴질랜드 교민 자녀들을 위한 우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 오클랜드 한국학교는 유치부에서 이미 한글을 배운 교민 학생들을 위해 한국이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즉 토요일 방과후 활동으로 한국의 전통예술과 체육활동 등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말과 글을 익히고 나아가 우리의 역사 및 전통문화와 예절을 습득하여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고 있으며, 다문화 국가인 이곳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데 교육목적이 있음.
- 한국학교만의 비전과 한국학교에 대한 한국정부나 뉴질랜드 정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 한국학교는 비전2020이라는 목표아래 21세기를 이끌어 갈 우리의 2세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과 글을 배우고 익혀서 세계를 품은 한국인으로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사로 성장시키는게 그 목표임. 사실 우리 한국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민협회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함.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도 토요일에만 지역학교를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금천구는 현재 다문화가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한국에서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조언을 해 준다면
-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문제는 우리가 먼 타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겪고 있는 절실한 문제이기도 함. 금천구에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다면 그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를 해 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우수사례 및 시사점

- 이국땅에서 정착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민 사회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요구됨
- 다문화가정이 많은 우리 금천구에서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학교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함
- 뉴질랜드 뿐만이 아닌 외국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 이러한 교민자녀들을 위해 자치단체 차원의 자매결연을 통한 홈스테이 운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오클랜드 한국학교 현황

- 위 치 : 뉴질랜드 오클랜드(1995년 개교)
- 교 장 : 최명희
- 조 직 : 북부, 동남부, 서부 3개 학교 40학급
- 교사 및 학생 : 70명/700명
- 교육목표 : Vision 2020
- 기능 및 역할 :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
- 설립취지
 - 한국인으로서의 뉴질랜드에서 자라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과 글을 알게 하며 나아가 우리의 역사 및 전통문화, 예절 습득을 통하여 다문화국가인 뉴질랜드에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한다.
- 교육과정
 - 한글의 올바른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한국사 및 한국문학, 실용한자 읽기, 쓰기
 - 사회, 윤리, 전통예술(음악)
 - 신체 단련을 겸한 정신 통일 교육 (체육, 태권도)
- 실시과정
 - 1년 과정 : 4학기제(NZ 학사일정과 동일)
 - 초등부 6년을 마치면 중등부로 진학하게 하는 학년제 실시
 - 학급편성 : 연령별 분반을 원칙으로 하나 능력에 따라 재편성한다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 수업진행 : 매주 토요일 9시40분부터 1시10분까지 4교시 수업
 - 특별활동반 : 방과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희망자에 한함
 - 음악학교 : 오전 8시 40분 - 9시 30분 희망자에 한함

로토루아 데이브레이크 시니어 데이 케어

□ 방문개요

- 방문일시 : 2016. 5.23(월) 10:00~11:00
- 방문장소 : 로토루아 데이케어
- 참 석 자 : 케어장 및 방문단 13명
- 방문일정
 - 방문기관 소개 : 케어장
 - 방 문 단 소개 : 정병재 의장
 - 질의응답 및 기념촬영 : 케어장 및 방문단 13명

□ 질의응답 주요 내용

- 이곳 데이케어의 운영상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지
- 우리 시니어 데이케어에서는 노인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노인들마다 서로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여 이곳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있음. 노인들은 이곳에서 게임 등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됨.
- 불편한 말씀이지만 이곳 데이케어에서 혹시 사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이곳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서 케어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정부차원의 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케어에서 사망자를 직접 처리하지는 않음

-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노인들을 케어하는데 자녀들이 와서 돌보는 경우 일정 정도의 보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음. 이곳에서는 자녀들이 방문해서 케어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이곳 데이케어에서는 집에 혼자 있게 되는 외로운 노인들이 모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즉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노인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데이케어에서는 자녀들이 어떤 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것은 권고하지 있지 않음.

□ 우수사례 및 시사점

- 은퇴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이곳을 운영하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서로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금천구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기반을 만드는 데 고려해 볼 만함.
- 특히 우리의 경우 경로당이 폐쇄적인 면이 있고 요양원, 실버센터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곳 시니어 데이케어와 같은 진정으로 노인들이 모여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노인 우울증 등 노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것으로 보임.



3. 주요 시설 방문 현황

시드니 올림픽 파크

☐ 연수일시 : 2016. 5. 18(수) 16:00~17:00

☐ 연수내용

- 시드니 올림픽 공원(Sydney Olympic Park)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스 주 시드니 홈부쉬 지역에 640 헥타르 면적으로 조성된 스포츠 공원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시드니 올림픽 이후에도 스포츠 경기나 시드니 로열 이스터 쇼, 시드니 페스티벌, 빅 데이 아웃과 같은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 시드니 도시 철도의 올림픽 공원 선이 연결되어 있으며 올림픽 공원 역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시드니 하버에서 페리를 이용하여 이 지역에 접근할 수 있다.
- 이 지역은 과거 영국 함대가 도착하기 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왕갈족이 거주하던 곳이었다. 1788년 첫 이주민들에 의해 이 지역은 “The Flats”로 명명되었으며, 1807년 존 블랙스랜드에 의해 뉴잉턴 지구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이 지역의 일부를 나이 든 여성들의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매입하였으며, 과거 늪과 강이었던 대부분의 지역은 쓰레기 매립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 1980년대 중반, 이 지역에 오스트레일리아 센터라는 기술 공원을 조성하여 BASF, 필립스 전자, 산요 등의 기업이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시드니 올림픽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기술 공원을 에베라이 지역에 조성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 2007년 9월에는 커먼웰스 은행이 이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겼고, 2008년 중반에는 풀먼 호텔과 Formule 1 호텔이 완공되었다.
- 메인스타디움인 ANZ 스타디움에서는 매년 시드니 로열 이스터 쇼, 럭비 리그, 오지 풋볼, 육상 및 수영경기 외에도 연간 1800개 이상의 행사가 벌어진다.
- 몇몇 공간은 시드니 올림픽 당시와 다른 명칭으로 바뀌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야구 경기장은 시드니 쇼 그라운드로 명칭과 용도가 바뀌었으며, 시드니 수퍼 돔은 에이서 아레나로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은 텔스트라 스타디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ANZ 스타디움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 2007년 시드니 올림픽 경기장에서는 49개의 메이저 스포츠 행사가 벌어졌으며, 2005년 에이서 아레나는 매디슨 스퀘어 가든 다음으로 많은 수익을 올린 실내 경기장이 되었다.
- 과거 쓰레기매립장이었던 곳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현재는 많은 스포츠 행사와 공원으로서 시드니 시민에게 많은 편익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 관련사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 **연수일시 : 2016. 5.19(목) 11:00~12:00**

□ **연수내용**

- 호주 시드니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를 방문하여 시설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다.
- 1973년에 준공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건축형태와 구조적 설계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창의력과 혁신적인 방법을 결합시킨 근대 건축물이다.
- 특히 시드니 항구쪽으로 돌출된 아름다운 반도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아치형 다리인 하버브릿지의 위용을 곁에 두어 그 신비함과 웅장함을 한층 더하고 있다.
- 조가비 형태로 불리는 이 건축물의 특이한 지붕모양은 덴마크의 건축가 이외른 우촌이 오렌지 껍질을 벗기던 도중에 착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원형의 모양인 바깥표면은 자주 그곳을 향해하던 범선의 소함대를 떠올리게 한다.
- 당시의 기술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다고 모두들 생각했지만, 우촌은 현장에서 마디마디 콘크리트 조각을 일일이 계산해서 레고블록처럼 찍어내어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세워 올렸다.
- 계단과 바닥도 마찬가지로 나사로 연결된 콘크리트 마디마디의 조각은 간단히 분리되는 방식으로 보수방식이 간편하여 보수비용이나 기간이 확실히 절약이 되는 아주 지혜로운 공법으로 제작되었다.
- 1959년부터 시작하여 3년을 예상했던 공사는 무려 14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으며, 처음에 예상했던 비용보다 10배를 초과했다. 공사의 지연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 재정은 바닥이 나게 되었고 호주인들의 기대와 설레임은 분노로 폭발하여 급기야 정권이 교체되는 일까지 생겼다.

- 술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1973년 10월 20일 개관식을 열게 되었고, 이를 보기 위해서 전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한번쯤은 시드니를 방문하게 만드는 호주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2007년 근대 건축물로는 거의 유일하게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 오페라하우스는 4개의 주공연장인 콘서트홀, 오페라극장, 드라마극장, 연극관 외에 도서관, 연습실, 휴게실, 식당 등 약1,000여개의 방이 있으며, 2,700여석의 가장 큰 콘서트 홀은 교향악, 오페라, 민속음악, 회의 등을 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전면에는 10년동안 제작하고 2년간 조율을 마친 1만 2,000개의 세계 최대 파이프 오르간이 있으며, 최상의 음향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객석의자 하나하나가 유칼립투스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며, 높이 28m의 천장이 너무 높아서 소리의 전달을 위해 원형 천장에 소리관들이 길게 달려 있어 이 곳의 음향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 우리구의 다양한 문화센터에서는 작은 공간이라도 마이크 없이 소통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곳의 설계방식을 향후 지어질 공연장이 있다면 참고해 볼 만하다. 물론 이런 대규모 시설물을 자치구에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설계방식, 운영방식 등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시드니 세인트 메리 대성당 및 항만

☐ 연수일시 : 2016. 5.19(목) 14:00 ~ 16:00

☐ 연수내용

- 시드니에 위치한 고딕양식의 로마 카톨릭 대성당으로, 시드니 대교구 성당이다. 세인트 메리 대성당은 높이 솟아있는 46m의 첨탑과 건물자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고풍스러운 모습이 웅장하고 숙연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건물외관은 불그스름한 사암이고 내부는 섬세한 스테인드글라스가 화려한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매력 때문에 시드니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곳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한다. 1868년에 짓기 시작하여 건축기간이 100여년 걸려 2000년에 완공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건물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건축한다. 우리나라와는 색다르게 느껴진다.
- 세계3대 미항 시드니항만을 1시간동안 관람하는 스마트크루즈는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릿지를 여러각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감상할 수 있고 초대형 크루즈 유람선이 하버브릿지를 불과 60cm차이로 드나드는 광경은 장관이다. 갯팍과 돌고래머리 절벽이 파도를 막아 시드니를 천혜의 항구로 만들고 평균수심이 26m로 항공모함과 대형 화물선이 드나든다고 한다. 바닷물이 너무나 깨끗하고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



오클랜드 스카이다워

□ 연수일시 : 2016. 5.21(토) 10:00 ~ 11:00

□ 연수내용

- '스카이시티타워(SKYCITY Tower)'라고도 한다. 첨탑을 포함한 높이는 328m이고 최고층 높이는 222m이다. 뉴질랜드는 물론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탑으로, 오클랜드 시내 빅토리아가(街)와 페더럴가가 만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 1994년 공사를 시작하여 1997년 3월 3일 개관하였다. 크레이그크레이그 몰러사(Craig Craig Moller Ltd.)가 설계했고, 스카이시티엔터테인먼트그룹(SKYCITY Entertainment Group)이 소유·관리하고 있다. 1년에 평균 50만 명이 방문한다.
- 오클랜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고층빌딩으로, 통신·전망·관광을 위한 다목적 건축물이다. 고강도의 철근콘크리트로 건설하였으며 탑 위쪽에 사방이 유리로 된 전망대, 한 시간마다 360도 회전하는 레스토랑 층, 카페 층을 두었다. 야간에는 현란한 조명을 비춰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한다. 192m 높이의 53층에서 시속 85km 속도로 낙하해 16초 만에 내려오는 스카이점프로 유명하다.



4. 문화탐방

시드니 블루마운틴 탐방

□ 연수일시 : 2016. 5.18(수) 10:00~12:00

□ 연수내용

- 호주의 그랜드캐니언으로 불리는 블루마운틴은 동부의 급경사면에서 해발 1,180m에 이르는 버드록의 서부 비탈면까지 사암고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로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주변 1,989km²의 자연보호구역인 블루마운틴스 국립공원이 이 지역 안에 있다. 블루마운틴은 시드니에서 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악 국립공원으로 코알라가 주식으로 먹는 알콜성분을 함유한 유칼리나무로 뒤덮인 울창한 삼림지역이다. 푸른빛과 가파른 계곡, 폭포, 기암 등이 빚어내는 수려한 경관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 산맥은 푸른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블루 마운틴이라고 명명되었고 이 푸른 빛깔은 많은 종류의 토종 유카리 나무들이 흘뜨리는 작은 기름방울들 사이로 광선이 통과하면서 발생한다고 한다.
- 시닉 레일웨이 : 250m의 수직절벽을 오가는 기네스북에 오른 열차
- 시니 케이블웨이 : 3분간 545m의 가파른 경사를 오가는 주변경치 감상
- 수백년 동안 자라서 나무처럼 서있는 고사리나무는 원시 밀림을 연상케 한다.



시드니 동부해안가 탐방

□ 연수일시 : 2016. 5.19(목) 10:00~12:00

□ 연수내용 : 본다이비치, 갯팍, 돌고래 머리상 절벽

- 시드니 본다이 비치(Sydney Bondi Beach)는 미숫가루처럼 고운 모래사장과 서핑을 즐기는 바닷가이다. 시드니 남부 외곽에 위치한 해변휴양지로 시드니에서 동쪽으로 약7km에 위치한다. 남태평양과 맞닿아 있어 파도가 높은 이 해변의 이름인 Bondi는 어보리진 원주민언어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주말이면 늘 많은 인파로 붐빈다. 본다이비치의 도로변에 재활용품 및 쓰레기 분리수거 통이 비치되어 있다. 통 주변은 너무나 깨끗하다. 바닷가 백사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 시드니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갯팍은 왼쪽에 있으며 100m 높이의 깎아지른 수직절벽이 장관이고 빠빠용 영화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바닷가 절벽이다. 시드니에서 바다쪽으로 보면 돌고래 머리상 있는 곳은 오른쪽 해안 절벽이다. 사진에서 건너편 오른쪽 절벽이 갯팍이다. 시드니항은 갯팍과 돌고래상 절벽이 험한 파도를 막아 천혜의 항구로 자리하고 있다.



오클랜드 마운트 빅토리아 탐방

☐ 연수일시 : 2016. 5.20(금) 14시

☐ 연수내용

-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내 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뷰를 가진 마운트 빅토리아(Mount Victoria)는 오클랜드 시내에서 10분~15분 정도 걸리고, 야경 포인트로도 좋은 데본포트에 있다.
- 마운트 빅토리아(mount victoria)는 해발 196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를 이용하여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고 넓은 잔디가 펼쳐져 있다. 이곳은 데본포트까지 페리를 타도 좋고 20~30분정도 산책 겸 걸어도 좋다.
- 오클랜드 시내를 전경을 볼 수 있는 많은 전망대가 있지만,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 제일 아름답다고 손꼽는 곳이기도 하다. 뉴질랜드 에서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얼핏 한강 고수부지에서 남산쪽을 보는것 같지만,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한강변과 달리 여유롭고 웅기종기 작고 예쁜 마을들이 있어 마음이 더 편하고 여유로와 진다.



로토루아 테푸이아 마오리 민속마을 탐방

☐ 연수일시 : 2016. 5.22(일) 13:00~15:00

☐ 연수내용

- 마오리족族(Maori)은 뉴질랜드 섬의 원주민으로 10~12세기경, 폴리네시아의 소시에테 제도로부터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신분사회를 구성, 귀족의 토지소유, 계보·전승의 존중이 현저하다. 마라키하우라고 불리는 해신(海神)등의 신화적 존재나 인물상을 의장(意匠)으로 해서 건물이나 가구 혹은 카누의 이물·고물(선미) 등에 조각한다.
- 특히 카누를 장식하는 조각이나 투각(透刻)은 마오리 예술의 대표적이다. 조상(彫像)의 얼굴이나 체구에는, 전면에 빈틈없이 마오리 미술의 기본 모티브인 곡선문양이 새겨진다. 기타 의장(儀校)인 곤봉, 손도끼, 목제 나팔에서 나이프의 손잡이, 숟가락 류(類)에 이르기까지 공이 많이 든 각문(刻文)이 새겨져 있다.
-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웰링턴의 각 박물관이나 미국의 보스턴 미술관 등에 대표적 컬렉션이 수장되어 있다. 마오리 옛 전통가옥, 고사리나무(punga tree)와 고사리나무껍질로 지어졌다. 고사리나무와 껍질은 쉽게 썩지 않고 오래 버티며, 이곳 고사리는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하는 다년생 초본인 잎고사리(이 나라에서는 먹지 않음)와 나무처럼 크는 목본 고사리나무(punga tree)가 있다. 고사리 나무는 수십년씩 큰것은 기둥처럼 10여m씩 자라 원시림을 이루고 있다. 마오리 민속마을, 대문에 가려진 정면 가운데 큰 건물이 마오리 민속 공연장, 오른쪽 마오리 전통건물 작은것은 파타카(Pataka/Food storage house)이다.

- 향이는 마오리 전통음식으로 지열로 찌서 먹는 방법으로 고기나 감자류 등을 찌서 올려 놓거나 묻어 익혀서 음식을 해 먹는 것이다.
- 우리의 연가(비바람이 치던 바다 ~♪♪)는 포크송 스타일로 빠르고 경쾌하게 부르지만 이곳에서는 진중하고 적당한 느린템포로 감성을 실어서 노래 부른다. 깊은 감정을 실어 애창하는 노래임을 알 수 있다.
- 하투파투는 선조로 문헌에 의하면 쿠룽가이투쿠에 의해 이 계곡으로 들어 왔다고 한다. 이 지역은 특이한 지열지대 온천으로 선조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져 왔고 1901년 지어진 이 마오리 전통가옥을 1906년 영국 여왕 방문때 마오리 해글리 파크에서 이곳으로 이송되어져 기독교교회(Christchurch)로 되었다가 훗날에 또다시 와카레와레와(Whakarewarewa)로 바뀌어 졌다.
- 이곳 민속마을은 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음식점 하나 없으며 후손에게 될 수 있으면 자연그대로를 물려준다고 한다. 단지 경제적 이해관계로 마오리 두 부족간에 다툼이 있어 높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 옆의 마오리 마을로는 갈 수 없는 점과 전통공연과 향이식사를 호텔에서 즐겨야 하는 점은 아쉽기만 하였다.



로토루아 아그로돔 농장 탐방

□ 연수일시 : 2016. 5.22(일) 10:00~11:30

□ 연수내용

- 아그로돔 농장은 뉴질랜드의 전형적인 농장으로 19종의 숫양들과 양모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공연이 진행되는 곳이다. 이곳은 다양한 국가의 방문객들을 위해 통역서비스를 하고 있어 쇼를 관람하는데 매우 편리하였다.
- 양털깎기, 우유짜기 등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었다. 밖에 나와서는 개가 직접 양몰이를 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 뉴질랜드는 북섬과 남섬에서 제1차 산업으로 농장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고 한다. 북섬은 소 농장이 많고 남섬은 양 농장이 많다고 한다. 북섬보다 남섬이 더 춥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아그로돔 농장은 어쩌면 뉴질랜드 대표 산업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로토루아 레드우드 수목원 탐방

☐ 연수일시 : 2016. 5.22(일) 10:00~11:30

☐ 연수내용

- 로토루아 근교 레드우드 수목원에는 뉴질랜드 임업시험장이 있으며, 아름답고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뽕뽕하게 들어차 있다. 2차 대전 당시 목숨을 바친 뉴질랜드 병사들을 위해 산림청 직원에게 비공식적으로 준 미국 캘리포니아 산 레드우드를 육종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레드우드 수목원이 되었고, 뉴질랜드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의 소장이 책임자로 있다.
- 산책코스는 15분부터 8시간까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색깔로 구분된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레드우드 산림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맑은 공기로 머릿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최상의 산림욕장이다.
- 하늘높이 솟은 레드우드 나무들이 뽕뽕하게 들어찬 자연휴양림으로 붉은 삼나무가 신선한 공기를 뿜어내어 아침 산책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한다.
- 우리나라보다 나무의 성장속도가 매우 빨라 거대한 나무고사리와 덩굴식물로 이루어진 약간은 정글같은 느낌을 주는 최상의 산림욕장으로 이런점 때문에 이곳에서 반지의 제왕, 쥬라기 공원, 아바타 등의 영화를 촬영하면서 더욱 유명해 졌다고 한다.
- 레드우드 숲에 들어가면 하늘높이 자란 레드우드 뿐만이 아니라 라티아타 소나무, 카오리 나무, 고사리 나무들이 보이는데 높이가 이 나무들 또한 높이가 20미터가 넘어 40~60미터인 레드우드 나무와 함께 어우러져 더욱 웅장한 느낌을 준다.

- 특히 뉴질랜드 국목인 고사리는 뒤쪽이 하얀 것이 특징이고 목본식물의 실버고사리로 뉴질랜드의 상징이라고 한다. 뉴질랜드는 풍부한 강수량과 비옥한 토질, 많은 일조량으로 한국에 비하면 약 20배 정도로 나무가 빨리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와이토모 은하수 반딧불 석회동굴 탐방

- ☐ 연수일시 : 2016. 5.23(월) 12:30~14:00
- ☐ 연수내용

- 와이토모 동굴(Waitomo Caves)은 뉴질랜드 북섬의 와이카토 지방에 있는 관광명소이다. 개뿔벌레의 일종인 그로우웜(GlowWorm)이 서식하고 있는 동굴로 동굴 아래 냇물이 흐르고 있어 배를 타고 그로우 웜을 본다. 어두컴컴한 곳에 가면 그로우웜이 마치 밤하늘의 은하계를 보는 것과 같이 촘촘히 빛나 신기함을 더해 준다. 와이토모란 마오리어로 물과 동굴을 뜻하며 우기에는 동굴에 흐르는 냇물이 증가하여 배를 타고 동굴 안을 관광할 수 없다.



- 호주는 생산된 어떤 상품이든 내수로 우선 소비하고 남는걸 수출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최고급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의 학교, 기숙사, 양로원, 병원에 우선 제공하는 방식이다.
- 호주 시드니 시내 중심가는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인도가 차도보다 넓다. 보행자 우선이며 시내로 올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 신호등의 위치가 곧 정지선이며 신호등을 넘는 것 자체가 교통위반이다.
- 시드니 시내 길거리 주차는 불법이 아니다.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무인주차발권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위반하는 경우 벌금이 크다고 한다.
- 아이들이 등교나 하교하는 시간인 아침 8시에서 9시 30분, 오후 2시부터 4시 30분 사이에 스쿨존 속도제한을 운영하며, 스쿨존 지역에서 40킬로 미만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해야 하며 위반시 일반장소 위반 벌금의 두배를 내야한다.
- 호주는 과도한 음주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하여 음주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류 판매제한 등 지나친 음주문화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 음주가 금지된 알콜프리존을 운영하고 있다.
- 공원에는 야외 바비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는데 공공용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뒷정리가 되어 있어 다음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
- 노동력을 중시하여 대졸기준으로 가장 임금이 높은 직업군이 광부이며,

공익과 희생의 가치를 중시하여 호주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한다.

- 호주의 실업수당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한달에 한번 오전에 두시간 정도이며 집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서 이력서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인터뷰하는 방법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써 주지만 그 정도도 하기 싫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한다. 실업수당을 못받는게 아니라 안받는 사람들인 것이다.
- 폐기물 처리는 거의 대부분 매립이다. 가장 친환경적인 폐기물처리 방법이며, 지반이 암석이기 때문에 침출수 문제도 없고 소각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 호주의 분리수거는 빨간통(일반쓰레기와 음식물), 노란통(재활용품), 녹색통(잔디, 나뭇가지 등 식물류)로 간단하게 구분되어 있다. 또한 재활용 분류를 노인 일자리로 제공하고 있어 페트병에 있는 비닐조차 분리수거하는 우리와는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입국시 미가공식품, 과일, 씨앗류, 목재, 각종 식물에 대한 검역이 매우 까다롭다. 자국의 1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으로 식품안전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 뉴질랜드에는 톨게이트가 없으며 모든 도로는 무료이다.
- 뉴질랜드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녹색초원과 산이 많고 공기가 좋아 가시거리가 좋아서인지 안정 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 뉴질랜드는 여성인권이 발달한 나라여서 세계최초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나라이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나 각종 수당혜택이 여성중심으로 되어 있다.
- 뉴질랜드 의료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구는 적지만 국민 모두에 대한 의료혜택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 관련사진



재활용품 및 쓰레기 분리 수거통



무료 공원 바비큐 시설



차양막이 있는 시드니 시내



인도에 고정되어 있는 광고판



버 스 존



알 클 존

- 95년 분구이래 지방자치 역사 20년을 넘긴 우리로서는 다양한 선진 지방자치 제도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사례와 경험을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의무가 있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이번의 연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 지금 우리구의 최대 화두인 교육, 복지 그리고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꼽히는 호주와 뉴질랜드 주요도시의 교육과 복지관련 기관을 방문하고 친환경 개발사례 등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우수자료를 수집,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내실있고 차별화된 국외연수를 위해 오랜 기간을 두고 의원들의 관심분야와 또한 우리구에 꼭 필요한 자료수집 등 비교시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연수주제와 연수국을 결정하게 되었다.
- 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점을 고려해야 했다. 연수 목적에 맞는 방문국을 선정해야 했고, 의원 해외연수가 항상 외유성 이미지와 연결되어 주민과 지역언론의 비판의 대상으로 이어지기에 이를 일소하려면 방문기관을 잘 선정하여 추진해야 했다.
- 구청의 정책을 감시해야 하는 우리 의원으로서 구정의 장기 과제나 어려운 문제 발생시 특별한 묘안이 없을 때 선진국의 우수한 정책, 문화제도 등에 대한 직접 체험의 기회로서 국외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국외연수 사전 준비를 하여도 현실에서는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선진국의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 부재, 예산 지원의 한계, 기관 방문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여행사의 부족 등이다. 그러나 해외연수를 통해서 선진도시의 다양한 제도와 문화 전반을 체험할 수 있기에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의원 개개인이 우수 사례를 의정활동에 반영해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또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다녀온 이번 연수는 비록 짧은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두 국가에 대해 면면히 살펴 볼 수는 없었지만 이번 방문일정을 완수하며 느낀 소감을 적어보고자 한다.
- 먼저 공식방문지인 호주 시드니 외곽의 작은 도시 스트라스필드 시의회를 방문하여 옥상두 현 시장의 시정정책과 의회운영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서 많은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 인구 4만의 시드니 외곽의 스트라스필드시이지만 놀라운 점은 그곳의 시장이 교포 1세대의 한국인 옥상두 시장이었다. 한국 정원 조성과 소녀상 건립 등 호주의 스트라스필드 시장이면서도 타국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큰 감명을 받았고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 또한 이곳 스트라스필드시가 곧 통폐합 될 것이라는 소식에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 폐지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이 떠올라 안타까움을 느끼며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우리 금천구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는 실정이고 이곳 스트라스필드는 호주의 이민정책으로 인해 다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특히 호주 제1의 한인타운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옥상두 시장과의 질의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지역사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회사별, 사업장별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관습, 정책 등을 반복하여 교육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우리 금천구에 적용해 볼만하다고 할 것이다.
-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 있는 한국학교를 방문하면서 재외국민에게 선거권까지 주면서도 해외에서의 교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깨달았다. 타국땅에서 살면서 2세대, 3세대에게 우리말, 우리글을 잊지 않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노력에 감명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정부에서도 교민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으며,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들과 소통하며 배우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점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 로토루아의 시니어 데이케어를 방문하여 뉴질랜드의 우수한 복지 정책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물론 우리와 다른 운영방식 가지고 있었지만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우리구도 독거 노인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설들을 참고해 볼만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호주와 뉴질랜드의 여러 시설과 지역을 방문하며 느낀점은 자국의 제1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특별한 노력과 이러한 정부정책을 신뢰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스쿨존, 알콜존, 버스존 등 서로의 규범을 잘 지키는 그들의 선진 의식수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최고소득의 직업이 광부이고 청소년들이 꿈꾸는 최고의 직업이 소방관이라는 점은 권위와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어울려 지내는 것을 제일 중시 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현재보다 미래는 더욱 밝아 보였다.
-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손꼽히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복지 국가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와는 많이 달랐다. 생산능력이 있는 젊은 시절에는 국가에 충분히 세금을 내고 65세 이후에 의료복지까지 책임지는 국가와 국민과의 공고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 공연예술의 중심지 오페라 하우스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치는 세 자매봉이 있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그리고 온 천지가 유황온천과 지열대로 뒤덮여있고 원주민들과 융합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로토루아를 방문하며 천혜의 자연유산과 더불어 이를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주려는 노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 우리는 너무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이러한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편의성만을 고려한채 조급하게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본다. 앞으로 우리구의 공공건축물이라도 지역적 특성과 우리구의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후손대대로 보존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의원으로서 노력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이지만 비행시간이 긴 점을 감안하면 실제 6일간의 일정으로 두 국가를 방문하기에는 조금은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다. 그래도 연수목적과 방문기관을 정하고 관련기관에 대해 사전공부를 하였으며 실제 방문하여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연구했다.

- 연수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토대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과 문화적 체험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끝으로 알찬 연수가 될 수 있게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심사위원님들, 오랜 비행시간으로 피곤한 일정임에도 큰 사고 없이 공식 방문을 완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특히 연수를 앞두고 갑자기 다리를 다치셔서 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움에도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백승권 복지건설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수단을 즐겁게 환대하여 주시고 상세히 안내해 주신 스트라스필드 시의회 옥상두 시장님, 오클랜드 한국학교 최명희 교장님 등 방문기관 관계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지역 주민들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호주, 뉴질랜드 두 국가를 다녀오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는 우리의 지방자치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선진국가의 여러도시를 방문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제일 먼저 방문한 호주 시드니 외곽의 스트라스필드 시의회는 시의회에서 지방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평의원 7명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고 이들 평의원들이 시장을 뽑게 된다고 한다. 우리와는 다른 통합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곳 시장이 교포1세대의 옥상두라는 분이고 이분이 한인이라는 점이다.
- 이곳 스트라스필드시의 여러 정책들, 특히 한국정원 조성은 타국에서 우리 한국인의 긍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민들을 다시금 돌아 보게 했다. 내가 이곳을 방문하기 전에 여러 보도자료를 통해 파악해 본 바로는 인구 4만의 작은도시인 스트라스필드시에서 일본의 국제적 만행에 항의하는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다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 지금의 시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곳 스트라스필드는 특히 호주 제일의 한인타운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비록 이곳에서 소녀상 건립이 부결되었지만 그것이 종결된 것이 아닌 계속 진행중이라는 옥상두 시장의 말에 다시한번 한국인의 긍지를 느끼게 된다. 우리 정부에서 이러한 활동에 힘을 주지 못하는 점은 아쉽기만 하였다. 뉴질랜드의 한국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정말 교민들이 이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 놀랍고 부끄럽기까지 하다.
- 뉴질랜드의 복지시설을 방문해서 그곳의 운영현황을 들었다. 우리와 많이 다르긴 하였지만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았다. 뉴질랜드는 많은 자원을 가지면서도 인구가 450만으로 적으니 그만큼 복지정책도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

겠지만 다만 자국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정책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 호주와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점은 그러한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금천구보다 큰 면적에 적은 인구라면 깨끗한 도시환경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잘 유지되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연수를 통해서 방문기관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한 배울점과 연수국 전반의 우수사례들을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
-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기를 마친다.

- 호주, 뉴질랜드 두 국가에 대한 연수는 지금껏 우리 의회에서 동남아국가나 중국 등을 주요 연수국으로 하던 것에서 많이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로 손꼽히는 이들 국가의 선진도시와 주요시설 등을 방문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리라 생각하였다.
- 먼저 호주 시드니의 스트라스필드 시의회와 홈월드,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의 한국학교와 시니어 데이케어를 공식 방문하여 책임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우리 금천구에 적용가능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스트라스필드시의 옥상두 현 시장은 교포1세대로서 한국인의 공지를 위해 먼 타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오클랜드 한국학교의 최명희 교장을 비롯해 교민 관계자분들께서는 제2세대, 제3세대들을 위해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 한국의 정체성과 이국에서의 정착에 많은 힘을 쏟고 있었다. 또한 홈월드의 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과 시니어 데이케어에서는 개별 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 호주와 뉴질랜드는 관광자원이 우수한 나라이다. 어디를 가도 깨끗한 환경과 인위적이지 않은 모습들은 이들이 얼마나 친환경적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금천구보다 큰 면적에 적은 인구라면 깨끗한 도시환경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잘 유지되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 이번 호주와 뉴질랜드의 연수를 통해 방문기관과 그 나라들의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에서 외유라는 세간의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보고, 듣고, 느낀점을 충분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정의 적절히 감시하고 또한 좋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해외의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지역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연수를 앞두고 많은 걱정이 되었다. 지난해 중국에 이어 7대 의회에서 실시하는 두 번째 해외연수이다. 주변의 외유라는 시선과 또한 나 자신 스스로 연수의 결과물을 구민을 위한 정책적 제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연수를 바로 앞두고 다리를 다쳐 가지 못할까 했지만 그래도 힘들겠지만 선진도시의 우수사례를 체험해 구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의무라는 생각에 굳은 결심을 하고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발하였다.
- 오랜 비행시간과 바로 수술한 다리가 불편하여 많이 힘이 들었지만 항상 응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첫 번째 일정부터 참여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호주의 그랜드캐년으로 불리는 블루마운틴 탐방으로 시작된 호주의 일정, 블루마운틴을 돌아보며 설악산, 지리산 등 우리의 국립공원을 생각해 보게 된다. 우리와 차이는 무엇일까? 이곳을 해외 여행자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의 우수한 점을 우리구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등등..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규모면에서 확실히 우수한 점이 있지만 오랜기간 방문자들을 감탄하게 하는 이유는 최대한의 자연상태로 보존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아닐까 싶다.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있고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우리도 이점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 다음날 방문한 호주 시드니 외곽의 인구 4만의 작은도시 시트라스필드 시의회. 이곳 스트라스필드시는 특이하게도 평의원이 선출한 시장이 한인이었다. 옥상두 현 시장은 시의 운영에도 탁월하였지만, 특히 호주 제1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한국까지 몇 번씩 방문하면서 한국정원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 이곳 스트라스필드시는 일찍부터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금천구가 계속 다문화가정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정책을 우리구에 접목할 수 있는 점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이민자들에 대한 조기정착 교육 프로그램이 귀에 들어왔다. 시의회에서 사업장에 일일이 찾아가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우리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되었다.
- 호주에서의 다음일정은 주요시설로 올림픽파크, 오페라하우스, 시내, 성 세인트메리 성당, 시드니 항만을 방문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나의 생각을 조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이들만의 건축철학은 디자인, 안전성 및 편의성 등에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었다. 오페라 하우스만 보더라도 14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걸쳐 건립되었고 오로지 소리의 전달을 위해 객석의 의자하나까지도 소리의 전달에 애쓰는 정성이 호주 시드니의 랜드마크 오페라 하우스를 탄생시킨 것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14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빨리 건축하는 기술은 있을지라도 세계의 명품 건축물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는 이유는 먼 미래를 보지 않은데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 우리 금천구에 건축되어질 여러 공공시설물들이 이렇듯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먼 미래를 보고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이곳 호주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여유로워 보였다. 우리처럼 일에 쫓기지도 않으며 경쟁위주의 사회도 아닌 듯 했다. 공동체의식도 강한 듯 보였고, 규범도 잘 지켜지는 것 같았다. 4시부터 퇴근차량으로 길이 막히기 시작한다니 부러우면서도 일에 대한 성취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 우리의 성취에 대한 강한 욕구와 이들의 여유로운 삶의 중간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유토피아같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 다음으로 방문한 뉴질랜드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진 나라였다. 버스로 이동하는 내내 소와 양목장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이곳 뉴질랜드는 자국민의 1차산업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의 모든 도로는 무료라고 하는 점은 특이한 점이였다. 이곳에서의 첫 일정은 오클랜드 시내의 주요 시설물을 견학하는 일이었다. 도시자체가 항만과 어우러져 그야말로 그림같은 도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인구 450만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아파트 위주인 우리 도시와는 너무도 비교가 되었다.
- 이곳 오클랜드에서는 교민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한국학교를 방문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먼 이국에서 교민 2세대, 3세대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도 한국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도 없다는 말씀에 재외국민에게 선거권까지 부여하면서도 타국의 교민들을 잇고 사는건 아닌지 하는 반성을 해 보았다.
- 다음으로 방문한 로토루아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거의 모여사는 마을이다. 이곳은 화산과 온천, 지열대로 유명하고 마오리족에게 운영권을 모두 주고 있다고 하니 융합해서 생활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방문한 테푸이아 민속마을과 와이토모 반딧불 동굴도 물론 마오리족이 운영하고 있는데 로토루아 지역을 다니며 느낀점이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존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이곳 지역에서 방문한 지역에 음식점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인위적인 시설도 최소화하고 있었다. 우리 같으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음식점이 즐비할텐데 말이다.

- 이번 연수에서 마지막 공식방문지로 시니어 데이케어를 찾았다. 이곳에서 뉴질랜드의 우수한 복지정책을 엿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곳은 우리와 달리 노인들이 서로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이 맞춰져 있어 운영방식이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우리 같으면 노인복지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말이다. 그래도 우리구도 독거노인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며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많이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 이렇게 호주와 뉴질랜드로의 6박8일간의 연수를 마쳤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번 연수를 통해 무엇을 얻고 가는가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손꼽히는 호주와 뉴질랜드, 이들 나라들이 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것일까. 짧은 일정속에 면면히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와 국민사이의 공고한 신뢰감이 아닐까 싶다. 높은 세금을 감수하면서도 복지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노년에 국가로부터 공고한 복지적 혜택을 받는다는 신뢰감이 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 다음으로 이들 나라는 분명 자연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고 살려서 수많은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는 데에는 그만큼의 선대와 후대간의 노력이 컸을 것이다.
- 다친 다리로 목발과 휠체어로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힘든 점이 있었지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의 배려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멀리서도 항상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연수를 계기로 호주, 뉴질랜드라는 선진국의 우수한 점과 문화적 특성을 우리구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 호주, 뉴질랜드 두 국가에 대한 연수는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수를 준비해야 했기에 사전에 많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시작하였다. 비록 6박8일의 짧은 일정으로 두 나라의 모든 우수사례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연수내내 우리 금천구에 접목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연수를 다녀왔다.
- 호주 시드니 시트라스필드 시의회를 방문하여 옥상두 시장의 한국 정원 조성에 대해서 들으면서 나름대로 한국의 우수한 정원들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들의 다문화 정책과 의회운영 등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면서 역시 지속적인 교육이 정답이라는 점을 느꼈다. 오클랜드 한국학교는 해외에서 교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놀라웠으며 데이케어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유연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눈에 들어왔다. 모두 우리 금천구의 교육과 복지 정책에 적용해 볼만한 것들이었다.
- 호주와 뉴질랜드 시내를 모두 깨끗하고 시민들이 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 점이 놀라웠다. 역시 선진국의 의식수준이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느껴졌다.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의 흡연과 음주에 대한 강력한 정책들은 전국민에 대한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조금은 놀라운 일이지만 내면에는 예방이 재정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배울점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1차 산업 보호 등 자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다. 외국에 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파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니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였다.

- 우리 금천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배워 우선 구민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 노력해야 겠다는 다짐해 보았다. 이번 연수를 통해 배운점과 문화적 체험을 바탕으로 향후 구정이 정책들이 구민을 위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으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해야 겠다는 다짐을 한다.
- 끝으로 이번 연수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옥상두 시장님을 비롯하여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방문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길가에 보이는 전봇대에는 광고물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고, 도로의 스쿨존과 버스존이 철저히 지켜지는가 하면 한밤에 지나가는 행인이 없어도 정지선에 대기하는 승용차들은 그들의 선진 의식수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빨리빨리 보다는 천천히를 기본으로 질서와 도덕과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시민들과 최고의 직업으로 소방관을 꿈고 있다는 청소년들, 그리고 실질적인 정년이 없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어르신들을 보며 그들의 현재보다 미래는 더욱 밝아 보였다.
- 풍부한 지하자원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국민을 위한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나라이며, 우리나라의 설마 문화가 아닌 혹시 문화로 공동체를 위한 규범이 잘 지켜지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손꼽히는 호주와 뉴질랜드는 복지 국가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와는 많이 달랐다. 생산능력이 있는 젊은 시절에는 국가에 충분히 세금을 내고 65세 이후에 의료복지까지 책임지는 국가와 국민과의 공고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었다.
- 또한 젊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수혜자들 역시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받는 기본자세에 충실하다. 공동체 의식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키는 공중질서,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정책 등 작은 것이 잘 지켜지는 나라가 곧 선진국이며 이러한 선진국은 정부와 국민과의 신뢰회복에 집중하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백년 대계를 보며 술선수범하는 자세와 더불어 작은 제도 하나도 소중히 지키는 질서의식과 국민의 의식수준 또한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 공연예술의 중심지 오페라 하우스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치는 세 자매봉이 있는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그리고 온 천지가 유황온천과 지열대로 뒤덮여있고 원주민들과 융합하여 관광객을 끌어모아 지역을 발전시키는 로토루아는 세계적인 명품속에서 천혜의 자연유산과 더불어 살아있는 정신을 살린 후손들의 노력이 깃들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이곳은 분명 자연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지만 그 자연을 최대한 보호하고 살려서 수많은 관광객 유치로 이어지는 데에는 그만큼 앞선 사람들과 후손들의 노력이 컸을 것이다.
- 오페라하우스를 봐도 14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걸쳐 건립되었고 오로지 소리의 전달을 위해 객석의 의자하나까지도 소리의 전달에 애쓰는 정성이 호주 시드니의 랜드마크 오페라 하우스를 탄생시킨 것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14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을까?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가 빠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지속가능한 저력있는 명품들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 최근 우리 금천구에 건축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 하나가 우리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설계되고 있는지 또한 지역적 특성이나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오페라 하우스와 같은 건축물이 될 수 있을지 조금은 회의감이 들었다. 우리는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이러한 지역적, 문화적 디자인을 감안하지 못하고 편의성만을 고려한채 조급하게 건축물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본다. 앞으로 우리구의 공공건축물이라도 지역적 특성과 우리구의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후손대대로 보존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구의원으로서 노력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 연수를 시작할 때에는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짧은 연수기간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사례를 수집하여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벤치마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도 선진도시의 다양한 기관들을 방문하며 우리와 다른 정치, 경제,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해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우리나라나 호주 시드니나 지방기초자치단체를 없어도 좋다는 사고를 지닌 것에 놀랐다. 호주는 영국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영연방 국가중 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문한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시의회의 경우는 평의원 7명중 한분은 한국 교민으로서 시장을 맡아 시정을 운영하면서 한국 고유의 정원 사업을 호주에 심는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
- 그리고 시드니 시정부에서 스트라스필드 지방의회를 다른 기초의회와 합병하는 것을 반대하는 소송을 시의회에서 진행중에 있다고 한다. 모름지기 민주주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국가로 이어지는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일부 인사들이 기초의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무지는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으나 호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의 기초단체는 존재하는 이유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 즉 구청장이 각종 법령상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탈루되는 각종 세입은 없는지 집행부에서 주민의 민원을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감시, 감독한다면 기초의회 무용론이 사라질 것이며 민주주의를 이땅에 확고히 뿌리 내릴 것이다.
- 또한 우리 의원은 자부심을 갖고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주민의 입장에서 바로 잡고, 의원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삼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 호주, 뉴질랜드 두 국가를 살펴 본 결과 속속들이 다 들여다 보지는 못했지만 호주 시드니 외곽 작은도시 스트라스필드 시의회를 방문하여 옥상두 현 시장의 시정정책과 의회운영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본다. 인구 약 4만의 시드니 외곽의 스트라스필드시는 생소한 도시였다. 놀라운 점은 그곳의 시장은 교포 1세대의 한국인 옥상두 시장이라는 것이다. 1985년 유학길에 오른 후 정착하여 지금의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 인구의 약 10%는 한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코리아타운까지 조성되어 있었다. 머나먼 호주의 한 도시에서 한국인 시장은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머나먼 타지에서 시의원을 거쳐 스트라스필드 시장에 당선되어 시정을 살피고 있는 모습은 한국인의 긍지를 높이며 자랑스럽기도 하였다.
- 시찰 지역은 시드니 인근 시가지는 물론 지역 어디를 가도 깨끗한 도시환경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금천구보다 큰 면적에 적은 인구라면 깨끗한 도시환경이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잘 유지되고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 이런 부분에서 생각이 드는 것이 최근 우리 금천구의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방법과 관련해 적용해 볼만한 사례로 들여다볼 가치가 있다 하겠다. 주거지역과 상권이 어우러져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일일이 지역주민에게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실태를 설명하고 실태개선을 바라는건 어렵다.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인 실태보고와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 호주, 뉴질랜드 정부는 다문화 이민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사람이 곧 자원이자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과거 이민제한과 유색인종을 배척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인종간의 차별없는 정책을 펼치면서 서로가 이해와 설득으로 무리없이 시정을 펼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 우리 금천구는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듯 하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와 질서 등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정부 정책의 홍보만 가지고는 어려우니 회사별, 사업장별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관습, 정책 등을 반복하여 교육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한국학교 방문에 교민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비록 타국땅에서 살면서 2세대, 3세대 어린이들에게 우리말, 우리글을 잊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 정부에서도 교민을 위한 정책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으며, 교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시점에서 정부차원에서 그들의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교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더불어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민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 뉴질랜드 지방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정부지원정책, 운영실태 등 궁금한 사항을 묻고 서로 양국 복지정책에 관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다. 선진국가의 복지정책의 운영실태에 큰 감명을 받았다. 국민들의 높은 세금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노령시대를 대비하여 철저한 사회보장제도에 신뢰를 갖고 높은 세금을 감당하면서도 국민들이 호응한다.

- 정부 정책을 잘 따라준다는 것은 정부도 그만큼 국민들이 믿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지 않는가 보여진다. 환경복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도 선진국 비교시찰 등 여러방법을 통하여 비교연구에 동참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이번 연수를 통해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 체득한 정보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원으로서 그러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끝으로 연수를 함께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외 관계자 분들에게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이번 연수는 지난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가게되는 연수인 만큼 지난해의 아쉬웠던 점을 감안해 단단히 사전준비를 하였다. 특히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등을 제외하고 선진국으로 손꼽는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하에 되어 더욱 기대를 하게 되었다.
- 첫 번째 방문국인 호주에서 시드니 외곽의 작은도시 스트라스필드 시의회를 방문하여 옥상두 현 시장의 시정정책과 의회운영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다. 인구 4만의 작은도시 스트라스필드시는 다소 생소하였지만 호주 제1의 한인타운이 있는 도시이고 이곳 시장이 교포 1세대의 한국인 옥상두 시장이라는 점은 놀라웠다. 스트라스필드시는 많은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구의 약 10%는 한인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옥상두 시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특히 호주의 이민 정책과 다문화가정이 많은 우리구와 비교할 수 있는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 금천구와 이곳 시의 다문화정책에서 차이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이곳은 일단 법으로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시의회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우리 금천구에도 적용해 볼만하다고 생각되었다.
- 두 번째 방문지인 오클랜드 한국학교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민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인의 정체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교민 2세대, 3세대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말, 우리글을 가르치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연구해 볼 생각이다.

- 뉴질랜드 지방 복지시설은 우리와 다르게 노인들간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했다. 로토루아의 시니어 데이케어에서는 밝게 웃고 있는 노인분들을 볼 수 있었으며 외국인이지만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선진국가의 복지정책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게 국민들이 높은 세금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에 신뢰를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 그 외 많은 곳을 방문하면서 풍부한 자연자원과 경쟁이 없는 여유로운 사회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고 정부정책에 국민들의 호응이 높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다. 이번 연수를 마치며 연수때의 하나하나의 좋은 체험과 우수사례들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
- 6박8일의 짧은 연수를 마치며 기간동안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 수행 직원분들, 그리고 해외에서 반갑게 맞이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